

미디어학(media studies)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

- 한 개인의 연구여정 사례를 중심으로 -

박진규**

논문초록

이 글은 미디어학(media studies)을 배경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한 사례를 한 연구자의 연구여정을 정리한 형태로 제시한다. 이 연구자는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을 탐색하기 위해 문화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성과를 적용하였다. 그는 수용자 연구, 제작 연구, 텍스트 분석 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관련현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근 몇 년간 수행한 경험적 연구에 대한 재해석의 결과들을 정리하였으며 그것을 종합하여 개신교 공동체를 위한 몇 가지 제언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여정은 완결을 향해 계속될 것이며, 미디어학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시도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신앙과 학문의 통합, 미디어학, 대중문화, 문화연구

* 이 논문은 2010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조교수

2012년 7월 26일 접수, 8월 30일 최종수정, 9월 24일 게재확정

I. 서론: 신앙과 학문의 통합과 미디어학(media studies)

개혁주의적 신학 기반의 세계관을 가진 학문 종사자에게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통합의 수준과 방향, 그것을 통한 구체적 결과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신앙과 학문추구라는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상치하거나 분리되지 않아야 함을 믿는다. 물론 학문분야의 성격에 따라 그 통합의 모습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진리의 절대성을 드러내거나 입증해내는 과정이 아니므로, 그 통합의 추구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해야만 한다.

사회과학의 하위분야로서 미디어학(media studies)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다. 하지만 방식을 떠나서 이 분야에서 두 영역의 통합에 대한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은 분명하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은 신앙적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매개하는 현상들에 대한 해석과 진단, 평가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개신교 공동체 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한 해석, 진단, 평가를 미디어학의 학문적 성과를 통해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세속사회와 개신교 공동체 간 소통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속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적 역학에 주목하는 미디어학은 이러한 요청에 많은 시사점과 함께 실용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분야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최근 들어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종교 일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소위 “세속화론(secularization thesis)”의 주장처럼 근대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종교 제도와 조직의 힘은 약화되었지만, 종교는 여전히 사적영역에서 사사화(privatization),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통해 개개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이원규, 2006, p. 289). 이런 상황에서는 종교 제도와 기관이 교조적인 영향을 행사하던 시대와 비교해 주관성, 자율성, 성찰성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Roof, 1999). 종교 사회학에서는 이를 두고 현대 사회에서 종교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기존의 제도종교로부터 “예상치 못한 곳들(unexpected places)”로 이동하였다고 설명한다(Wuthnow, 1992). 이러한 새로운 맥락 속에서 종교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 가운데, 미디어

와 대중문화는 개인의 종교적 의미생산에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주목되고 있다(Forbes, 2000).

미디어학 내에서도 종교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사각지대(blind spot)”에 머물러 있었다(Hoover & Venturelli, 1996). 다른 많은 사회과학 분야가 그러했듯, 비이성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종교는 이성적 학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미디어학 내의 기본전제 때문이었다(Carey, 2002).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종교와 미디어 사이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미디어학자들이 증가했는데(Clark, 2002), 이들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만 여겨지던 두 영역, 즉 미디어와 종교 사이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교차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미디어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해독되는 데 있어서 종교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내러티브, 상징들을 활용해 개인과 집단이 종교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표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연쇄적으로 나타난 세기말, 세기초적 현상들은 미디어학자들에게 종교가 차지하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재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개신교 내부에서도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신국원, 2004; 강영안 외, 1998; 추태화, 2004; 송준섭, 1993 등). 사회 내에서 미디어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현실인식과 가치관 형성, 규범의 변화 등 개신교 공동체의 근원적 관심사에 미디어의 매개(mediation) 기능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대중음악, 광고, 인터넷 등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특히, 개신교 위기론(김경재 외, 2004; 김준우, 2002; 정성구, 1998 등)의 중심에 위치한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선교 및 교육에 있어서 대중문화를 무시하거나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대한 개신교 공동체의 본격적인 관심과 탐구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청년과 청소년 세대를 담당할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디어학을 배경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모색한 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미디어

어학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단일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또한 단일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사례는 그 다양한 통합의 방법론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함을 미리 전제한다. 나아가 이 사례 제시가 앞으로 보다 다양한 통합의 방식들이 시도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보여주는 사례는 세부전공 영역을 ‘종교와 미디어의 교차점 연구’에 두는 한(초보)연구자의 개인적 연구여정을 중심으로 한다. 이 글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지난 몇 년간 수행한 경험적(empirical) 연구들의 결과를 재해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해당연구들은 일차적으로 미디어학 혹은 종교학에 보고되기 위해 설계된 연구들로서, 아래에서는 여기서 도출된 결과들을 2차 데이터로 삼아 기독교적 시각에 입각하여 새롭게 해석할 것이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이렇게 자신이 속한 학술공동체의 시각과 언어를 가지고 그 학술공동체의 전통적 관심사에 부합한 연구를 통해 기여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일정 정도 축적된 후 그 연구결과를 다시 개신교 공동체를 위해 재해석하고 그에 적합한 시각과 언어로 보고하는 것이 사회과학 영역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추구해야 할 방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학을 제외하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연구자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절대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세속학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식은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학술적 다원주의(academic pluralism)를 인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학자 크리스찬스(Christians, 2004)가 주장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학문활동은 세속주의를 조롱하거나 이분법적 사고에 갇힐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술분야에서 규범적 원칙으로 자리 잡은 학술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독교 연구자들은 자신이 속한 학술분야에 적절한 언어로 연구활동을 해야 하며, 신앙적 사고와 해석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2차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

1) 그동안 미디어/대중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적 시각의 논의는 주로 신학적 배경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미디어학을 배경으로 한 논의는 많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여기서 제시하는 방식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려는 미디어학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글은 연구논문 글쓰기 형식이 갖는 경직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신앙과 학문 간 통합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이 글의 목적에 기존의 논문 형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술적 글쓰기에서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의 문제는 단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외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의 의미와 목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Clifford & Marcus, 1986). 그동안 미디어학 내에서, 특히 아래에서 필자가 적용한 이론적/방법론적 전통으로 설명할 미디어 문화연구에서는 창의적 글쓰기와 형식적 과격이 가져올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왔다(이상길, 2001; 주형일, 2011). 그동안 실증주의에 의해 주도된 미디어학에서는 실증적, 계량적 연구에 적합한 글쓰기 형식과 관습이 발전해 왔는데, 이와는 다른 인식론적 성격을 지닌 문화연구는 학문 내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 형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한계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도모함으로써 문화연구가 추구하는 세계관을 더 효과적으로 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미디어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내에서는 학술적 전통에 적합한 글쓰기의 다양성을 점차 인정해 가는 추세이다.

또, 다양한 학술분야를 아우를 뿐 아니라 신앙과 학문이라는 두 영역의 융합에 있어서 창조적인 시도를 모색하는 학술지 『신앙과 학문』의 성격과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도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 학술지의 성격상 학문과 신앙 통합의 개별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시도되는 학문과 신앙 간 통합의 과정과 방식에 초점을 두어 그것을 드러내며 그 속에서 파생할 수 있는 고민과 성찰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술논문이 갖는 경직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다학제적일 수밖에 없는 『신앙과 학문』의 필자와 독자가 서로 다른 학문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발전되어온 전문적, 기술적 용어와 표현방식으로 소통하기는 매우 어렵다. 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내부 학문전통들은 서로 다른 글쓰기 형식을 개발해 왔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이 다양한 학문분야와 전통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도모하는 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술논문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쓰기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필자를 3인칭 “그”로 호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기술할 것이

다. 일반적 논문형식의 글쓰기에서는 연구자 자신을 1인칭 “나”로 표현하지 않고 “필자” 혹은 “연구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관행이다. 이러한 글쓰기는 필자의 주관성을 은폐함으로써 연구 과정이나 결과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필자의 개인여정에서 주관성의 개입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드러내려는 이 글에서는 효과적일 수 없다. 대신 필자를 “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개인의 연구사를 드러내는 것은 그 업적이 인정받을 만하거나 그 서사가 갖는 중요성이나 권위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사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따라서 “나” 대신 3인칭 주어 “그”를 사용해 상대화함으로써, 이 연구여정에 대한 읽는 이들의 평가가 더욱 쉬워질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이 앞으로 미디어학에서 시도될 다양한 통합을 모색하는 이들에게 도전과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²⁾

II.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도구로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그”가 미디어학에서 신앙과 통합에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개신교 내에서 유통되던, 대중문화를 소위 “사탄의 문화”라 규정하는 담론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 개신교에는 대중문화의 세속성, 선정성, 폭력성, 자극성 등을 비판하며 이에 매우 공세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은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예를 들어 신상언, 1992). 이 시기에 미디어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었던 그는 이러한 시각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대중문화를 평가하는 당위적 입장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한국 교회의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시각이 비단 이 시기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

2) 이렇게 개인적인 연구여정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미디어학을 배경으로 하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공부하는 다수의 대학(원)생들로부터 요청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도가 학술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과 유사한 사례들을 알고 싶어 했으며 그 사례의 과정을 듣고 싶어 했다. 이 글이 이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최근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내한공연을 가졌을 때, 개신교를 중심으로 공연 반대 운동을 하고 공연장 근처에서 기도회를 여는 등의 공세적 대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³⁾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개신교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들 가운데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⁴⁾ 사실, 이런 시각은 한국 개신교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등 기독교의 사회적 위상이 큰 서구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많이 보인다. 미국의 경우, 1997년에 미국 내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Southern Baptism)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Disney)를 보이콧한 것(Warren, 2001 참조)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런데 그는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미디어학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미디어 텍스트의 강한 영향력 내지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 텍스트 영향력에 대한 수용자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디어학에서 미디어의 효과를 주 연구주제로 삼는 효과연구 전통(effects-theory tradition) 내부에서도 이미 폐기되었거나 큰 폭으로 수정된 소위 ‘대효과 이론’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미디어의 효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과 변인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개신교의 관점이 미디어학의 학술적 성과에 비춰볼 때 탄탄한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그는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기존 시각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대신 대중문화에 대한 공세적 관점이 한국사회에서 개신교의 사회적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기독교의 신념과 대중문화를 분리하고 이 둘을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소위 “문화전쟁(culture war)” 관점이 사회적으로 갖는 효과, 특히 그 상징적 효과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가 이런 전환을 한 것은 미디어학 분야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

3) “한쪽선 레이디 가가처럼 옷 입고 퍼포먼스, 또 한쪽선 “동성애·자살 조장... 공연 반대” (조선일보, 2012. 4. 28 참조)

4) 이러한 대응방식의 예로는 2001년 가수 박진영이 6집 앨범 <Game>를 발매했을 때와 2003년 가수 박지윤이 <할 줄 알아?>를 발매했을 때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방송불가 신청을 제기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06년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영화 <다빈치코드>의 상영금지 신청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첫째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로서, 미디어와 대중문화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하면서도 역설적인 현상들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인데, 표면적인 현상을 만들어내는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적 평가는 사회적 공명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마지막은 관련 현상을 설명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가정과 전제를 제공하는 접근법에 대한 성찰이다. 미디어 학내의 다양한 접근법들은 모두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성향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만 스스로 채택한 접근법의 지향점과 한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그는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문화전쟁” 관점은 대중문화에 대한 개신교의 시각으로서 절대적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 전환에는 두 가지의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는 한국 개신교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형성, 강화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괄목한 성장을 보인 개신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한국사회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한국 개신교의 전통적인 신학적 보수성이 배태한 근본주의적, 이원론적 태도가 사회적으로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며 “편협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최형묵 외, 2007). 특히 2002년 한국에서 개최된 월드컵과 미군 장갑차 사고, 촛불집회, 대통령 선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신교의 가시적 행태⁵⁾로 인해 개신교는 보수, 친미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부각되고 이는 한국사회 내에서 개신교의 상징적 자리매김이 고착화 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개신교가 대중문화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또 그것의 공개적 표명이 가져올 상징적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은 미디어학 내 연구전통의 하나인 문화연구(cultural studies)를 접하게 되면서, 종교와 미디어의 교차점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원래 문화연구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그것이 지칭하는 학문적 전통 역시 다양한데, 여기서는 그 의미를 영국 문화연구(British Cultural Studies)에 국한하며, 버밍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의 현대문화연구소

5) 당시 개신교의 이러한 움직임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국금식기도회를 들 수 있다. 이 구국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반미시위규탄”과 “주한미군 철수 반대” 등을 주장했으며, 기도회 현장에는 태극기와 함께 대형 성조기가 내걸렸다.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를 중심으로 활동한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된 다학제적 연구전통을 지칭한다. 다양한 사회현상 속에서 권력(power), 의미(meaning), 맥락(context), 저항(resistance) 등을 발견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학문적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이 전통은 존재론, 인식론에 있어서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려는 경향을 띤다. 사실 문화연구는 미디어학 뿐 아니라 문학,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사회철학, 종교학 등 학문분야 간 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디어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없으나, 미디어학 내에 이를 접목하여 하나의 세부전통을 구축한 연구자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디어 문화연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이상길, 2004).

미디어학(커뮤니케이션학)은 크게 정책적 패러다임과 비판적 패러다임으로 구분된다(Melody & Mansell, 1983). 이 중 정책적 패러다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였는데,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지식생산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나의 도구로 규정하여 미디어 효과의 크기와 특성을 탐색하는 효과연구 전통은 이 패러다임에서 출발하였으며 주로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한다. 이 패러다임은 미디어학 내의 지배적 위상으로 인해 “주류 미디어학(mainstream media studies)”으로 불리기도 한다.

반면 비판적 패러다임은 유럽의 사상적 토양에 기반을 두고 문학, 철학 등 인문학적 성향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비판적 패러다임은 다시 두 개의 연구전통으로 나뉘는데, 정통 맑스주의(Marxism)의 경제결정론에서 출발하여, 경제적, 물질적 요인으로 미디어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이 그 하나이며, 위에서 설명한 문화연구가 다른 하나를 구성한다. 주류 미디어학의 실증주의적, 기능주의적, 실용주의적 정향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과 문화연구는 입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이 미디어의 소유와 통제에 주된 관심을 두고, 현재의 계급구조와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는 데 어떻게 미디어가 활용되는지를 탐색, 비판하는 목적을 지닌다면, 문화연구는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이에 저항하는 대중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투쟁(struggle for meaning)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문화연구의 특성이 기존의 효과연구 전통중심에서 벗어나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을 탐색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기존연구들을 찾기 시작한다.⁶⁾ 그러던 중 “미디어, 종교, 문화(media, religion and culture)”로 스스로를 명명한 연구공동체를 알게 된다. 1990년대 들어 종교에 대한 미디어학의 관심이 높아질 무렵, 미디어학, 종교학, 신학, 사회학, 문화연구, 문화인류학 등을 아우르는 연구자들이 모여 종교와 미디어의 교차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Hoover & Lundby, 1997). 이들은 자신들의 연구정체성을 미디어, 종교, 문화 등 세 개의 키워드로 규정하고,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현상을 탐색할 때 이 둘을 매개하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모색은 문화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성과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Clark & Hoover, 1997).

이 연구공동체의 연구성과를 탐색한 그는 이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연구에 적용할 이론적, 방법론적 접근방법을 규정하게 된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의미생산 과정의 결정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수용자의 의미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동성과 저항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의 힘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의 힘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방법론적으로는 실증주의와 양적 방법론을 지양하고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onism)에 입각하여 심층인터뷰, 포커스그룹, 텍스트분석, 민속지학지(ethnography) 등의 질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는 특히 연구대상과 방법론 선택에 있어서 “다관점적 접근방법(multiperspectival approach)”(Kellner, 1997)을 채택한다. 즉, 기존에 제작, 텍스트, 수용 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분절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던 것에서 벗어나 제작 연구, 텍스트 분석, 수용자 연구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관련현상에 대한 보다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그가 최근 몇 년에 걸쳐 수행한 수용자 연구, 텍스트 분석, 제작 연구 등의 경험적 연구 성과를 데이터로 삼아 이를 다시 2차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6) 기독교적 시각에서 대중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데 문화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신국원(200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기독교적 문화 변혁”을 위해 문화연구가 제공하는 이론적, 실천적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한다.

III. 수용자 연구: 대중문화와 수용자의 종교적 의미생산

대중문화에서 개신교에 비판적 내용을 지닌 텍스트가 등장할 때, 개신교의 반응은 주로 그것이 대중, 즉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모아진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수용자에 대한 미디어 텍스트의 강력한 영향력을 전제로 한다. 즉,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태도변화(attitude change)의 크기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미디어학의 연구결과를 통해 쉽게 지지받기 어렵다. 미디어학 내에서 미디어 텍스트의 영향력의 크기에 관심을 두는 효과연구에서는 종교처럼 개인에게 심각한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Klapper, 1960; Trenaman & McQuail, 1961).

이런 맥락에서 그는 반 개신교적 대중문화 텍스트에 대해 수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기로 한다(박진규, 2007).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연구는 실증주의적 가설검증이나 효과연구 전통의 연구설계를 채택한 것은 아니며, 질적 방법론을 통해 수용자들이 텍스트 수용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생산하는가를 귀납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탐색이 가능했던 것은 사례연구에 적합한 흥미로운 미디어 텍스트가 등장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활발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선택한 텍스트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MBC에서 방송된 일일드라마 <왕꽃선녀님>으로, 이 드라마는 세 가지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였다. 한 국문과 대학원생이 이른바 “신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주위의 반대와 온갖 시련을 겪으며 결국 신내림을 받아 무녀가 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내러티브를 가진 이 드라마는, 첫째, 가족 시간대에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등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고 이른바 “신기”와 같은 초자연적 현상의 시각적, 청각적 묘사가 빈번히 나타났다. 둘째, 이와 함께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제도권 종교와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종교 상징이 자주 등장하여 화제와 논란이 되었다. 셋째, 이 드라마에는 반복적으로 대사나 인물묘사 등을 통해 개신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선을 노출시켰고, 이러한 이유로 드라마가 방송되는 내내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개신교 단체는 이 드라마의 방송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⁷⁾

그는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왕꽃선녀님> 시청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반응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거부감”, “걱정스러움”, “반가움”, “놀라움”, “끌림”으로 명명한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사용한 언어적 표현 중에서 텍스트 속 종교상징에 대한 반응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들이었다. 이 반응들은 대중문화 속에 종교상징이 등장했을 때 수용자들이 생산해 낼 수 있는 반응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거부감”은 미디어 속 종교상징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는 반응을 말하며, “걱정스러움”은 종교상징 일반이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이 미디어 속 종교상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나머지 세 유형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가움”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상징이 다루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놀라움”은 미디어가 종교상징을 재현하는 폭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이다. 마지막 “끌림”은 미디어 속 종교상징이 자신의 영적 성향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반응을 보이는 유형이다.

그가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낸 것은 위의 반응 유형이 수용자들의 소속종교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각 유형에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과 신념을 가진 수용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종교에 소속된 수용자들도 다양한 유형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 드라마가 방송될 당시의 분위기와 시청자 게시판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가정했던 것과 달리, 이 드라마에 대한 개신교 수용자들의 반응도 다섯 유형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수용자들의 소속종교가 미디어 텍스트의 해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해독의 패턴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Hoover, 2006)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소속종교라는 단편적 변인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종교성/영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미디어 텍스트 해독유형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종교성/영성이란 종교전통 사이의 교리적, 제도적 차이를 뛰어넘어 공유되는 개인의 종교적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종교현상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한 개념이다 (Woodhead & Heelas, 2000). 이를 통해 그는 종교상징을 포함한 미디어 텍스트 해독

7) 2004년 9월, 한국교회언론회는 “귀신이 판치는 세상, 언론의 책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 드라마를 비롯한 대중문화 전반을 비판하였다.

방식을 네 가지로 새롭게 유형화하였다.

먼저, “교리적 해독”은 종교적 신념과 미디어 속 종교상징의 일치 혹은 불일치로 인한 거부감과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근본주의적 종교성/영성을 보이는 수용자에게서 나타난다. 둘째는 “다원적 해독”으로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종교상징의 다양성을 환영하는 방식인데 다원주의적 영성을 갖는 수용자들이 주로 채택한다. 셋째는 “영성추구적 해독”으로 추구적(seeking) 영성을 보이는 수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 구축에 유용한 상징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반응한다. 마지막 유형은 “세속적 유형”으로 미디어의 비과학적, 종교적 재현 자체를 거부하며 세속주의적 종교성/영성을 보이는 수용자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미디어에 등장하는 종교상징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속 종교상징을 통해 생산되는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제도종교를 긍정적,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러한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수용자의 종교적 멤버십을 가지고 미디어 텍스트의 효과를 추론하는 것은 큰 정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소속종교는 수용자들에게 스스로의 정체성으로서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그것이 미디어 텍스트의 해독패턴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수용자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자리매김”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즉, 종교상징이 포함된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을 효과(effects)의 틀로 접근하지 말고, 수용자들이 그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담론의 스펙트럼에서 특정 입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특정 텍스트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은 이러한 선택과 그 선택의 표명(presentation)을 통해서 자신을 사회 내에 특정한 위치에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을 담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수용자 개개인의 맥락을 넘어선 사회와 문화 일반과의 관계에서 수용자들이 생산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디어 텍스트는 수용자에게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칫 위협한 대상이 아닌, 수용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또 이를 표명하기 위해 선택

적으로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상징의 일람표(symbolic inventory)”(Hoover, 2006, p.275)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는 미디어 텍스트 속 종교상징에 대한 수용을 바라볼 때, 그 효과나 태도변화보다는 수용자들이 대중문화 소비 과정에서 어떠한 종교적 의미와 정체성을 생산, 재생산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lark, 2003; Hoover et al., 2004)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대중문화에 대한 개신교 내 담론의 주된 관점이던 영향력, 효과 위주의 담론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 태도변화의 크기를 측정하며 그에 따른 규범적 평가를 내리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 대한 거시적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대중문화에 반 기독교적 입장을 담고 있거나 개신교에 비판적인 내용이 등장할 때 개신교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러한 텍스트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얼마나 형성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텍스트가 생산될 수 있었던 맥락에 대한 이해, 수용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상황적 요인 등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종교상징을 포함하는 미디어 텍스트, 특히 개신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의 관심은 이제 미디어 텍스트의 제작과정으로 옮겨간다. 결국 수용자들에게 전략적 자리매김을 요청한 계기는 미디어 텍스트의 제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종교적 공생과 세속주의적 사회질서가 규범인 한국사회에서 종교상징을 포함하거나 특정 종교에 비판적인 텍스트를 생산하는 제작자들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논란과 비난을 전제하면서까지 이러한 텍스트를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텍스트 생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 엘리트로서 이들이 이해, 진단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넓게는 종교 일반, 좁게는 개신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지, 또한 이러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정당화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IV. 제작연구: 미디어가 기독교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과 맥락

그가 제작연구를 위해 주목한 사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일일드라마 <왕꽃선녀님>의 제작과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의 제작과정이었다. 이 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교관련 대중문화 텍스트의 두 가지 대표적 유형을 대변한다. 전자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나타나는 종교 및 신비주의의 예를 보여준다. 최근 드라마, 영화, 오락정보 프로그램 등에서 초월적 존재 및 초자연적 현상, 고대 동양 영성, 뉴에이지 영성, 마술, 판타지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무속 관련 상징이나 초월적 현상 및 신비주의는 이러한 미디어 텍스트의 예가 된다. 후자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나타나는 종교에 대한 관심의 예가 된다. 특히 <신의 길 인간의 길>은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담론 생산을 둘러싸고 저널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실천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교관련 대중문화 텍스트가 어떠한 과정과 맥락을 통해서 제작될 수 있었는지, 또 그 속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담론이 어떤 정당성을 바탕으로 생산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왕꽃선녀님> 제작과정 연구(박진규, 2008a)에서 그가 주목한 것은 이렇게 비판습적 내러티브와 재현양식을 포함한 텍스트가 지상파 방송사의 저녁 가족 시간대 일일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었던 상황적 요인은 무엇인가였다. 드라마 제작자들에게 종교를 본격적 소재로 다루는 것은 일종의 금기로 여겨져 왔으며 무속을 미신으로 여기는 인식이 매우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서는 무속을 호의적으로 그렸을 뿐 아니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제도종교들과 연관된 상징들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또한 총 174회가 방송되는 동안 신비주의 재현의 수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특히 100회를 전후해서는 초월적 현상의 표현에 대한 갈등으로 작가가 교체되는 사태를 겪는 등 종교와 신비주의 재현의 수위나 한계와 맞물린 풍부한 논의거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그가 발견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일드라마에서 종교와 신비주의를 다루는 것은 그것이 갖는 위험성과 기존 관행을 깨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작진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텍스트가 생

산될 수 있었던 것은 상업주의적 특성을 가지는 대중문화의 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즉, 이와 같은 재현의 시도와 표현수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작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반 대중의 반응, 곧 시청률이었다. 상업주의 구조 속에서 미디어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정당성은 시장에서의 성과를 통해 달성되는데, 이들은 종교나 신비주의가 내재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기획,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작이 진행되면서 신비주의 재현의 폭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제작진은 시청률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아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가늠하려 했다. 시청률의 상승과 함께 신비주의의 수위도 높아졌고, 작가가 설정해 놓은 신비주의 재현의 한계가 일반 대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그에 대한 절충과 타협 과정을 겪게 되기도 한다.⁸⁾

제작 전 과정을 거치면서 제작진은 우리 사회가 종교 및 신비주의가 미디어에 재현되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변화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이러한 형태와 내용의 미디어 상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한편, SBS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은 개신교와 미디어 사이에 보다 직접적인 갈등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동안 개신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는 미디어에 대해 중재신청, 법정다툼, 때로는 물리적 충돌 등으로 대응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신의 길 인간의 길>의 기획, 제작과정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이 주로 종교 조직 내 모순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윤리문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 다큐멘터리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교리 및 신학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인 논리를 끌어냈다는 점⁹⁾에서 논란거리가 되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은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중앙일간지 광고 게재, SBS 사옥 앞 시위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였다. 이러한 갈등에 따라 애초 4주에 걸쳐 방송하기로 되어 있던 총 4부의 프로그램이 3주 방송으로 단축되고 4부의 앞머리에는 한기총의 반론이

8) 제작과정에서 작가가 교체된 배경에도 이 한계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 있었다. 작가는 극 중 인물이 사망했다는 의사의 진단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설정을 했는데, 제작진은 이는 상식적이지 않라며 허용하지 않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작가 교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9)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 개신교의 배타성 및 공격적 선교방식 등의 문제점을 한국 개신교가 기초하는 근본주의적 신앙 및 문자주의적 성서해석과 연결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또한 “역사적 예수” 관점의 신학을 소개하며 한국 개신교의 신학적 다양성 부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그가 주목한 것은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스스로에 대하여 사용하는 담론적 정당화 방식이었다(박진규, 2008b). 종교가 미디어 종사자에게는 일종의 금기이며 특히 그 내용에 대한 논란이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것은 스스로를 저널리스트로서 규정하는 제작진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의 하나라고 정당화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이들 스스로 내세우는 언어를 통해, 현재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적 담론 생산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그것은 보다 보편적인 수준에서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을 이해하는 데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먼저, 이들은 종교를 사적 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으로 규정하여 미디어담론 생산의 대상이 될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비판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정치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사적 영역이므로 미디어의 비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개혁적 정체성, 즉 미디어가 담당해야 할 자유·다원주의적 비판 기능과 연결하여 설명하는데, 이에 따라 권력화의 정도가 심화된 개신교 비판은 미디어 생산자로서의 의무행사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직업의식에서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다원주의로 규정되며 종교영역에서도 다원주의는 지켜져야 할 가치로 인식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특정 종교가 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와 행위를 보인다면 마땅히 미디어의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런 인식 속에서 배타성, 오만, 독선 등은 다원주의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개신교의 특성으로 지적된다. 또한 개신교는 그 사회적 비중과 정치적 가시성으로 인해 하나의 권력으로 규정되므로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에서 볼 때 매우 정당한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신의 길 인간의 길>이 생산한 담론은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대중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아래 기획, 제작되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제작진들은 제작과정 내내 일반 대중의 정서를 확인하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판단에 따르면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정서는 이미 한국사회 전반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생산한 담론은 주류담론에 대항하는 대안적 담론이 아닌 이미 한국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대중담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문화 엘리트로서 이들에게 이 같은 논리와 정서는 일상적 정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저널리즘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은 미디어에 부여된 규범적 역할의 실천으로 이해해야 하며, 개신교가 보이는 근본주의적 신념 체계와 이에 따르는 하위문화적 행태는 자유-다원주의를 기초로 작동하는 저널리즘의 이념과 상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그 가시성을 높여 나가고 권력화할 경우, 미디어에 의한 종교담론의 생산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인다.

그는 위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가, 종교 관련 텍스트를 생산함에 있어서 미디어 제작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매우 크지만 제작과정에서의 선택과 결정이 그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미디어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인이나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자신들의 문화 실천의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종교 상징이나 신비주의 재현, 종교관련 담론의 생산 등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파악하고 진단, 평가함으로써 이에 따라 자신들이 생산할 텍스트가 일반 대중들의 정서를 반영하는지를 판단하려 한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개신교의 반응에도 함의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한다. 개신교에서는 주로 비판적 내용의 텍스트가 등장하면 그 원인을 제작자 개인이나 미디어 기업의 “불온한” 의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시각은 논란을 개별 사안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텍스트와 담론생산을 가능하게 한 맥락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그는 미디어가 취하는 비판적 입장에 대한 대응에서 두 가지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종교 집단과 세속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종교담론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체계에 입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의 비판은 개신교의 교리와 신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미디어가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 비판하는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개신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적 태도를 사회 전반적인 정서와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정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재 미디어의 구조 속에서 미디어 종사자가 생산하는 담론은 일정 수준 사회 내 보편적인 인식과 감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타종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미디어의 개신교 비판은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 즉, 개신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적 입장은 현재 한국사회 속에서 개신교가 갖는 상징적 위치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그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종교를 다루는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었다. 이제 그의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해 내는 종교담론에서 개신교에 대한 비판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이 비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된다.

V. 텍스트 분석: 개신교 비판을 넘어선 종교에 대한 “기대”

개신교를 다루는 미디어 텍스트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그가 먼저 주목한 것은 신문의 종교면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일간신문들은 주 1회, 한 면을 할당해 종교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종교 관련 사건사고 등은 기타 지면에 게재되는 반면 종교면은 기획성 기사 위주로 구성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종교면 텍스트는 저널리즘의 직업적 윤리와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진단,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종교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규정한 규범적 담론으로 볼 수 있다.

그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24개월간 일간신문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종교면 기사를 분석하였다(박진규, 2011). 먼저 개신교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타종교에 비해 비판적인 기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아래 <표1>은 기사에서 각 종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종교면의 특성상 호의적 기사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종교는 호의적 기사의 비중이 80% 이상인데 비해 개신교만 호의적, 비판적 기사가 각각 47.5%로 나타났다. 기획기사를 통해 긍정적 사례를 발굴, 보도하는 종교면의 고유한 특성이 개신교에 대해서만은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선 제작 연구의 특정 사례들에서 나타났던 개신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적 정서를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표1〉 종교별 종교평가 비율(%)¹⁰⁾

| | 호의적 | 중립적 | 비판적 | 합계 |
|------|------|------|------|-----|
| 불교 | 80.7 | 9.7 | 9.6 | 100 |
| 개신교 | 47.5 | 5.0 | 47.5 | 100 |
| 천주교 | 82.3 | 8.4 | 9.3 | 100 |
| 원불교 | 95.5 | 4.5 | 0 | 100 |
| 복수종교 | 72.0 | 20.2 | 7.8 | 100 |
| 기타 | 74.7 | 3.6 | 21.7 | 100 |
| 합계 | 71.1 | 8.4 | 20.5 | 100 |

그는 이 연구에서 개신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사들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주제를 분석함으로써 개신교에 대한 비판의 구체적 내용을 탐색하였다(〈표2〉 참조).

〈표2〉 종교별 주제/주장 비율(%)¹¹⁾

| |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 | 복수종교 | 기타 | 합계 |
|---------------------|------|------|------|------|------|------|------|
| 개인의 내적 구도 | 43.9 | 7.5 | 21.1 | 16.7 | 21.5 | 13.4 | 24.7 |
| 봉사/나눔 | 5.3 | 15.2 | 29.2 | 39.7 | 19.9 | 8.3 | 15.0 |
| 전통/민족문화 계승 | 10.0 | 5.7 | 6.4 | 0 | 4.4 | 19.0 | 8.0 |
| 사회정의/사회참여 | 7.0 | 6.0 | 10.7 | 8.0 | 11.9 | 8.6 | 8.0 |
| 타종교 및 사회에 대한 배타성 비판 | 2.9 | 14.0 | 3.0 | 0 | 6.6 | 0 | 6.0 |
| 생명/환경 | 3.8 | 7.0 | 2.6 | 0 | 5.9 | 14.5 | 5.3 |
| 사회평화/화합 | 4.1 | 1.8 | 1.8 | 9.3 | 7.4 | 7.8 | 3.7 |
| 종교 내 권력다툼 비판 | 3.3 | 8.1 | 0 | 4.6 | 0 | 0 | 3.5 |
| 종교간 소통 | 3.1 | 2.7 | 1.7 | 0 | 11.6 | 2.2 | 3.2 |
| 성장/물질주의 비판 | 0.1 | 7.7 | 0 | 0 | 0 | 6.8 | 2.9 |
| 세계 속 한국종교 | 2.8 | 1.3 | 4.0 | 19.0 | 0 | 2.7 | 2.9 |
| 삶의 궁극적 의미규정 | 2.1 | 4.3 | 2.6 | 0 | 1.7 | 3.1 | 2.8 |
| 종교의 시대적 변화 촉구 | 2.3 | 1.5 | 4.4 | 0 | 2.0 | 0 | 2.2 |
| 사회 내 종교 고유영역 구축 | 0.7 | 3.4 | 1.1 | 0 | 4.8 | 1.9 | 1.9 |
| 종교의 권력화 비판 | 2.8 | 2.2 | 0.5 | 0 | 0 | 0 | 1.7 |
| 종교 내 대안성 주장 | 1.6 | 2.4 | 0.5 | 0 | 0 | 0 | 1.3 |
| 단순정보전달 | 1.9 | 3.0 | 5.3 | 2.7 | 2.4 | 1.8 | 1.8 |
| 기타 | 1.9 | 6.2 | 5.1 | 0 | 0 | 10.0 | 5.2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 이 표는 박진규(2011)의 <표3>에서 일부를 변형한 것임.

11) 이 표는 박진규(2011)의 <표9>에서 일부를 변형한 것임.

여기서 개신교와 관련한 기사의 주제/주장을 살펴보면, ‘봉사/나눔’이 1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타종교/사회에 대한 배타성 비판’, ‘종교 내 권력다툼 비판’, ‘개인의 내적 구도’ 등이 뒤따랐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개신교에 대해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비판적 기사의 세부적 내용을 보여준다. 배타성에 대한 비판은 개신교 기사 전체의 14%에 해당하며, 종교 내 권력다툼 비판은 8.1%, 성장/물질주의 비판은 7.7%를 차지한다. 이는 불교나 천주교 등 타종교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이러한 비판은 결국 개신교를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널리즘이 규정하는 개신교의 성격에는 배타성, 분열성, 성장/물질주의 추구 등이 있으며 이는 저널리즘이 이상화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서 문제점으로 규정된다.

한편, 그는 종교면에 드러난 저널리즘의 종교담론을 통해 미디어와 종교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즉, 비종교 저널리즘이 종교면이라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종교면에 게재된 기사들의 주제/주장에 반영된 가치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미디어와 종교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간과되었던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기대(expect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종교를 다루는 저널리즘의 분석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첫째, 저널리즘은 종교가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이런 저널리즘 담론이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의 하나로서 종교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 및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에 대한 저널리즘의 기대를 분석함으로써, 종교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저널리즘이 투영하는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데, 종교면 기사의 주제/주장을 분석하여 그가 도출해 낸 가치는 ‘다양성’, ‘관용’, ‘베짱’, ‘화합/통합’, ‘대안성’ 등이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를 규범으로 하는 저널리즘이 종교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저널리즘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가 그 다원성을 해치지 않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세속사회가 잃어가는 도덕적 가치들을 재생산하여 제공하는 대안적 원천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기대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그는 또 하나의 저널리즘 텍스트를 선택하였다(Park, 2011).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인의 죽음¹²⁾을 경험하였고 이들의 죽음을 전후하여 큰 사회적

반향이 뒤따랐다. 또한 미디어는 다수의 기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삶과 죽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종교인의 죽음에 대한 미디어의 재현을 “신화(myth)”로 규정하였는데, 이들의 죽음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신화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즉, 미디어의 재현은 이들의 삶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들의 개인사를 바탕으로 선택과 배제를 활용하여 문화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서사(narrative)로 볼 수 있다. 미디어는 이들 개인의 삶을 통해 한국사회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 속에 이들을 위치시켜 특정한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를 “종교영웅 신화”로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신화는 특정한 문화적 집단에게 공유되는 신념과 가치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말하며, 신화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당대문화의 다양한 이미지와 행위를 분석할 수 있다(Edgar & Sedwick, 1999). 그는 종교영웅서사의 분석을 통해 미디어가 구성하는 한국사회의 모습과 함께 그 속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이상적 위치를 읽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신화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 총 137개에 대한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계열체 분석¹³⁾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분석을 통해 총 24개의 대립항이 도출되었고 이들은 5개의 그룹으로 재분류되었다. 여기서 종교영웅의 짝에 속한 것은 한국사회에서 종교에 부여되는 가치들이며, 반(反) 종교영웅의 짝에는 종교와 상반되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12) 이 연구에서 다룬 종교인은 김수환 추기경(2009. 2. 16), 법정 스님(2010. 3. 11), 옥한흠 목사(2010. 9. 12)였다.

13) 계열체 분석은 텍스트 속에 감추어진 체 의미를 만들어내는 대립항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며, 이런 분석을 통해 그 텍스트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특정한 방향으로의 해석을 제공하는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표3〉 종교영웅 신화의 이항대립

| 종교영웅 | 반(反) 종교영웅 |
|--|--|
| 소수자 / 약자 낮음 위로 사랑 / 자비 너그러움 희생 / 봉사 | 강자 / 권력 높음 무시 증오 탐욕 이기심 |
| 저항 민주주의 / 민주화 정의 예언자 / 비판 현실참여 신앙과 삶의 일치 자유 | 순응 (군사)독재 불의 침묵 (교회외) 높은 벽 신앙을 구걸 얽매임 |
| 통합 / 화해 조화 / 균형 (종교적) 관용 평화 | 갈등 / 분열 대결 (종교적) 경계 폭력 |
| 정신 무소유 자연 / 생명 침묵 / 은둔 | 물질 풍요 도시 / 발전 / 성장 말 |
| 성찰 소박 / 소탈 따듯함 | 오만 / 완고 권위적 / 형식적 무심한 |

여기서 도출된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기대”와 관련하여 그가 주목한 것은 종교에 부여된 가치들이 함의하고 있는 “대안성(alternativeness)”이었다. 이 분석을 통해 종교에게 부여된 것으로 드러난 소수자/약자, 저항, 통합/화해, 정신, 성찰 등의 가치는 현재 사회에서 작동하는 주류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안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종교영웅 신화는 세속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먼저 미디어가 규정한 세속사회의 현실은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분열, 물질주의 등으로 규정된다. 한편, 이러한 가치들은 정의, 사랑, 너그러움, 조화, 통합, 관용, 정

신, 자연 등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여기서 종교는 이러한 가치를 제공하는 사회제도로서 기대된다.

그는 위에서 살펴본 두 연구를 통해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기대담론은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미디어의 진단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은 미디어가 현재 사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종교를 그 속에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미디어의 규범적 담론이 세속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비판적 성찰에 따라 대안적 가치를 욕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미디어는 불안정성과 사회적 압력, 효율성과 승자독식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세속사회의 흐름 속에서 대안적 가치를 제공하는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종교가 그 기능을 담당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세속사회가 여전히 종교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신교에 대한 비판은 미디어의 적대적인 공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규정한 종교의 이상적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개신교에 대한 실망, 개신교가 그 이상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개신교 공동체가 이렇게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미디어가 생산한 종교담론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세속사회와의 소통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개신교가 미디어 담론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그 소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VI. 완결된 여정을 향하여: (잠정적)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한 (초보)연구자의 연구여정을 통해 미디어학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그가 지난 몇 년간 수행한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로서, 이를 2차 데이터로 삼아 기독교적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였는데, 이렇게 일차적으로 자신이 속한 학술공동체를 위하여 생산한 지식을 축적한 후, 이를 신앙 공동체를 위해 재해석하는 것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시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들을 개신교 공동체를 위해 재해석한 (잠정적)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신교 공동체는 미디어 및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미디어 및 대중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주된 방식이었던 “문화전쟁” 관점은 미디어학의 학술적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내 개신교의 상징적 자리매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도구로서 채택한 문화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성과는 대안적인 관점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종교상징이 포함된 미디어 텍스트, 반 기독교적 텍스트에 대한 개신교 공동체의 관심은 그것이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혹은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를 제작한 제작자의 “악의적” 의도를 비판하며 이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수용자 연구와 제작 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는 단순히 텍스트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나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텍스트의 제작자 및 수용자들을 둘러싸고 이들의 문화실천에 작용하는 거시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신교 공동체는 개별 텍스트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부정적, 긍정적 함의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 시각으로 사회, 문화, 종교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개신교의 상징적 위치와 대중정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디어가 생산하는 종교담론은 세속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개신교 공동체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디어의 종교담론은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 대하여 훨씬 비판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데 그치지 않으며, 세속사회의 가치체계에서 볼 때 그 구체적 비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준다. 나아가 미디어의 종교담론은 세속사회가 기대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개신교 공동체는 세속사회가 종교 일반과 개신교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즉, 미디어가 생산하는 종교담론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세속사회와 소통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디어의 종교담론이 드러내는 “기대”는 개신교의 성찰과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기대담론을 통해 현재 세속사회에 걸뒹되어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또한 이 걸뒹을 충족하기 위해 욕망하는 대안적 가치들은 무엇인

지를 알 수 있다. 개신교는 이러한 대안성 및 가치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세속사회의 기대와 개신교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 사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신교의 성찰과 개혁 방향의 모색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여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미디어를 둘러싼 거시적 맥락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갱신을 위해 한국의 사회, 문화, 종교적 특수성에 대한 탐색을 이어갈 것이며, 종교적 영역과의 관련성을 높여가고 있는 정치적 지형변화에도 주목할 것이다. 또한 저널리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수준과 층위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박진규, 2009 참조)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합의에 대한 해석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앞선 분석에서 종교가 우리사회에 대안성과 사회변혁적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회제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디어가 말하는 대안성 및 변혁적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을 이어갈 것이다. 이것은 세속사회와의 소통에 노력해야 할 개신교 공동체에게 그 소통의 접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학술공동체를 위해 생산된 지식을 개신교 공동체를 위해 가공하고 재해석하는 노력도 계속해서 시도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이 글처럼 학술적 글쓰기 뿐 아니라, 대중적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기독교적 시각에서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도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학술분야에 종사하는 신앙인으로서, 연구와 교육 양 영역에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삶의 각 영역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회적 역할을 통해 소명을 감당할 것을 요청하는 개혁주의적 신앙을 실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통합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잊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 사례가 미디어학에서 시도될 수 있는 신앙과 학문 간 통합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연구여정이 앞으로 미디어학 분야에서 신앙과 학문이 통합되는 다양한 모델이 시도되는 데 유용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안 외 (1998).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경재·김창락·김진호 외 (2007). 『무례한 복음』. 서울: 산책자.
- 김준우 (2002). 역사적 예수 담론의 종교문화사적 의미: 한국교회의 쇠퇴 위기와 세계적인 탈기독교 시대에 역사적 예수 연구의 필연성을 중심으로. 『세계의 신학』. 제57호. 49-92.
- 박진규 (2011).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저널리즘의 기대: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종교면 분석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9호. 285-329.
- _____ (2009). “미디어, 종교, 그리고 문화”: 미디어와 종교의 교차점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309-329.
- _____ (2008a). 종교와 신비주의를 소재로 한 일일드라마의 기획과 제작: “코드파괴 시리즈(code-breaking series)”의 사례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324-352.
- _____ (2008b).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과 그 정당화: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권 6호. 110-148.
- _____ (2007). 미디어 텍스트 속 종교상징에 대한 해독 연구: 일일드라마 <왕꽃선녀님>에 대한 다중적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381-410.
- 송준섭 (1993). 『현대문화와 텔레비전이라는 굴레: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현대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비평』. 서울: 선한이웃.
- 신국원 (2004). 『기독교적 문화 이해와 비평: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서울: IVP.
- 신상언 (1992).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서울: 낮은올타리.
- 이상길 (2010). 문화연구의 연구문화: 언론학계에서의 제도화 효과에 관한 성찰. 『민족문화연구』. 53호. 1-63.
- _____ (2004). 문화연구의 아포리아: ‘위기담론’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79-109.
- 이원규 (2006).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
- 정성구 (1998). 한국교회의 위기극복: IMF체제하에서의 국민적 고통과 한국교회. 『신학지남』. 제256호. 181-202.
- 주형일 (2011). 문화연구와 글쓰기: 하나의 모색. 『언론과 사회』. 19권 4호. 134-161.
- 최형목, 백찬홍, 김진호 (2007). 『무례한 자들의 크리스마스: 미국 복음주의를 모방한 한국 기독교 보수주의, 그 역사와 정치적 욕망』. 서울: 평사리.
- 추태화 (2004).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서울: 코람데오.
- Carey, J. W. (2002). Preface.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1(1): 1-3.
- Christians, C. G. (2004). Christian scholarship and academic pluralism.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Religion* 27: 11-24.
- Clark, L. S. (2003). *From angels to aliens: Teenagers, the media, and the supernatural*. Oxfor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lark, L. S. & Hoover, S. M. (1997). At the intersection of media, culture, and

- religion: A bibliographical essay. In Hoover, S. M. & Lundby, K. (Eds.), *Rethinking media, religion, and culture* (pp. 15-36). Thousand Oaks, CA: Sage.
- Clifford, J. & Marcus, G. (1986). *Writing cultur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ethnograph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dgar, A. & Sedgwick, P. (1999). *Key concepts in cultural theory*. London: Routledge.
- Forbes, B. (2000). Introduction: Finding religion in unexpected places. In Forbes, B. & Mahan, J. (Eds.),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in America* (pp. 1-20),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over, S. M. (2006). *Religion in the media age*. New York: Routledge.
- Hoover, S. M., Clark, L. S. & Alters, D. F. with Champ, J. & Hood, L. (2004). *Media, home, and family*. New York: Routledge.
- Hoover, S. M. & Lundby, K. (1997). (Eds.), *Rethinking media, religion, and culture*. Thousand Oaks, CA: Sage.
- Hoover, S. M. & Venturelli, S. S. (1996). The category of the religious: The blindspot of contemporary media theor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3: 251-65.
- Kellner, D. (1997). Overcoming the divide: Cultural studies and political economy. In Ferguson, M. & Golding, M. (Eds.), *Cultural studies in question* (pp. 102-20). London: Sage.
- Klapper, J. (1960).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New York: Free Press.
- Melody, W. H. & Mansell R. E. (1983). The debate over critical vs. administrative research: Circularity or challenge. *Journal of Communication*, 33(3): 103-117.
- Park, J. K. (2011). What a secular society expects from religion: Analysis of the media's representation of the death of religious figures. Paper presented at the Global Seminars in Media, Religion, and Culture. Hyderabad, India.
- Roof, W. C. (1999). *Spiritual marketplace: Baby boomers and the remaking of American relig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renaman, J. S. M. & McQuail, D. (1961) *Television and the political image*. Londong; Longman.
- Warren, H. (2001). Southern baptists as audience and public: A cultural analysis of the Disney Boycott. In Stout, D. A. & Buddenbaum, J. M. (2001). (Eds.),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Studies on the interaction of worldviews* (pp. 169-186). Ames, IW: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Woodhead, L. & Heelas, P. (2000). *Religion in modern times: An interpretive anthology*. Oxford, UK: Blackwell.
- Wuthnow, R. (1992). *Rediscovering the sacred: Perspectives on Religion in Contemporary Society*. Grand Rapids, MI: Eerdmans.

ABSTRACT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in Media Studies – A Researcher's Personal Journey –

Jin-Kyu Park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personal journey of a researcher who has integrated faith and scholarship in the field of media studies. The researcher applies cultural studi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his exploration of the intersections between media and religion. The paper attempts to illustrate his way of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by suggesting re-interpretations of his recent empirical studies of audience research, textual analysis and production analysis. The re-interpreted results of those studies as well as several points of suggestion for the Protestant community are listed here.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paper would contribute to encouraging diverse ways of integration of the two in media studies.

Key Words: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media studies, popular culture, cultural studies

